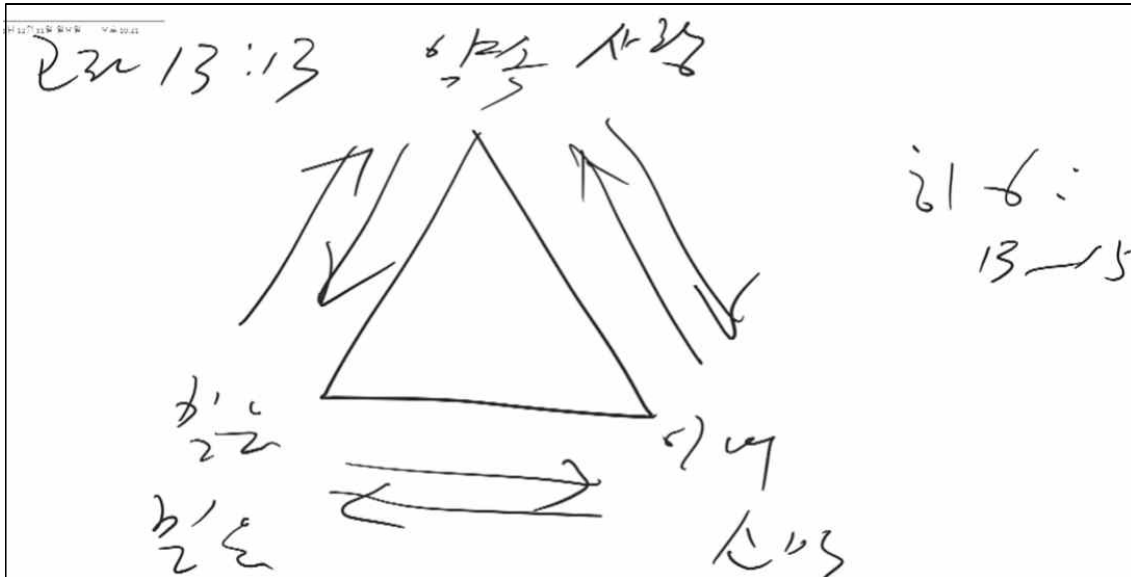




여러분들 우리 승리의 삼각형 배우셨죠? 우리 보겠습니다. 승리의 삼각형은 이게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죠? 승리의 삼각형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믿음의 조상까지 됩니다. 그래서 뭐죠?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약속이죠. 그다음에 그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 그다음에 이것을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아야 만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약속이에요. 근데 저는 이 승리의 삼각형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으면 절대로 우리 제자로서의 실패하는 삶을 안 살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에다가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세 가지가 또 있죠? 여러분들 고전 13장 13절이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아주 밀접해요. 밀접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 승리의 삼각형은 정삼각형이고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은 인내를 발생하기도 하고 인내는 약속과 합하여 힘을 얻게 되고 약속은 믿음과 연동이 되고 믿는 자는 반드시 약속을 주장하게 돼 있고 믿는 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죠?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믿음 그다음에 이걸 소망입니다.

사실은 우리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늘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약속이나 사랑이나 믿음 이걸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인내에는 비교적 강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보면 소망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약속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죠. 여러분들 사랑과 약속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끼리의 약속은 굉장히 신성하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약속을 밥 먹듯이 어깁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피치 못한 그런 사정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래서 잘 지금 혹시 싱글들이나 또 서로 이렇게 지금 같이 사는 분들 부부들 이런 거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평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진

짜 사랑하면요, 사소한 약속도 잘 안 잊어버립니다.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랑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랑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화가 되고요. 왜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믿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 자꾸 서로 간에 의심이 든다, 자꾸 미워진다? 이러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게 되면 또 소망을 가져, 기대감이 있어 그 사람에게 서로 상대방에게 기대가 있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없으면요, 이 완전한 삼각형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나 믿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사랑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여러분들 사랑이 검증되려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죠.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왜 사랑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중요하지만 사랑을 밑받침하는,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믿고 서로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이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은 믿기가 너무 어려워 진짜로 나 큰 일이야 여러분들, 나는 제가 이것을 뒷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소망적인 말씀이야. 여러분들 이 소망이라는 거, 이거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절망과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최고의 단어가 바로 소망이죠.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뭘 생각하고 있다고요? 뭘 생각해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죠. 근데 원래 여러분들 로댕의 작품은 여러분들 지옥문 위에 조각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옥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옥문 그 위에 무슨 글자가 써있냐면 ‘희망이 없는 곳은 지옥이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 어찌면 로댕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소망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내일 뭔가 우리는 기대감을 늘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24년도에 우리의 그 기대감을 주님께서 계속 저한테 하라 그랬는데 저는 계속 노력어. 나도 이 소망이 없어 별로, 왜? 환경이 너무 암울해. 특히 여러분들 이게 믿음 약속 믿음 인내 요거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75세인데 야 너 나중에 큰 민족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아브라함이 75세나 돼서, 75세가 되면 그 사라는 이미 경이 끊겼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이제 그걸 못 믿고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그걸 못 믿어서 자기 여종 하가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게 해요. 자기는 이미 경이 끊어져서 임신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너 아니야 사라 너한테 나와야 돼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75세에 도전을 받았는데 거의 25년 돼서야 이제 더 늙었어.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 몇 세. 여러분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더 절망적인데 주님께서는 믿어라 그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 주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래 참았죠. 25년이 돼서야 비로소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그것도 하나만

근데도 주님은 아브라함한테 너 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맨날 별 보여줘. 야 너 내 자손이 별 같아. 여러분들 이게 소망이고 이게 기대예요. 이게 인내고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거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실 분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도 없고 의심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러신다 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참 잘했다. 내가 너 그 믿음을 받아주겠다. 그 믿음 진짜.. 모든 사람이 다 비웃는 그 믿음 여러분들 아브라함 진짜 웃기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하란에서부터 이제 쪽 이집트까지 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 그러면 머리가 허연 분이 허연지 어쩐지 몰라도 그 늙은 분이 서로 통성명을 할 거 아니예요? 당신 이름이 뭐니까? 그러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뜻이 뭐니까?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럼 자식이 많겠네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저 노인 저거 노망 들었네. 좀 정신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가끔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지 궁금하시죠? 난 지금도 솔직히 자신 없어 내년에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근데 난 믿음으로 제가 하는 거야. 지금 믿음으로 주님은 내가 사랑하고 주님 난 사랑해. 왜? 주님은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어 한 번도 저를 사랑하는 그분이 저한테 빈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르는 겁니다.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뜬금없이 많이 드리느냐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이게 정말 2023년 하반기부터 이 얘기를 계속 저한테 했어요. 소망을 줬어요. 소망을 가지라고 그게 여러분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1-22)

-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 2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 3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 4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 5 그 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 6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 7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뿔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네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 8 저 구름 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 9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 10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 11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12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13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4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와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15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16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못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와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17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18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19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20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21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들 이사야 60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는 포로기에 쓰여진 예언서죠. 지금 여러분들 이 예언서를 이사야 보고 쓰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이 얼마나 허탈한지, 제가 우리 교회 상황과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영성을 비춰 볼 때도 불가능하지만, 지금 이 이사야가 60장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 70년 동안 완전히 예루살렘 초토화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이제 완전히 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숴버리고 성곽도 다 부숴버리고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그 여우나 늑대나 곰들이 사는 그런 허허벌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게 이사야 60장부터 그 뒤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교회 상황보다 훨씬 더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거를 주님께서 선포하라 그래요. 선포하라. 그러면서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계속 60장 61장, 62장까지 계속 반복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워낙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나도 믿음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참 내 믿음이 없어. 일어나라! 여러분들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이 앞부분에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 60:1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야 이제 너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 너 절망하고 너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 여러분들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

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소원이 70년 지나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노인들만 산거야. 여러분들 이미 그 바벨론에서 먹고 살 만한데 누가 오려고 하겠냐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내가 뭔가 하시겠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 이제 너가 빛을 봐라! 여러분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빛은 예수님도 빛이죠. 예수님은 빛이시죠?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또 뭘 상징하냐면, 복음 또 진리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0년 동안 고난을 받고 보니까 복음의 그 위력을 다 까먹었어. 우리 교회가 좀 그렇죠. 그 열정적인 복음의 열정들이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세상에서 잃어버린바 됐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부심도 없어져 버렸고 자긍심도 없어졌고 우리 교회를 어떤 분들은 창피해하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우리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빛과 진리교회 서치해보면은 유죄, 이런 데 내가 여러분들. 제가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교회를 극찬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은 우리 교회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훈련하는 교회가 있겠냐. 이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댓글에 뭐 달려 있는지 알아요? 아난데 빛과 진리 교회는 목사님이 2년 실형 받았는데? 이런 게 쓰여 있어.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쪼그라들어 있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저에게 이렇게 수채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내년 그 결과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느냐 니가 유죄를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다, 내가 내년에 이 빛과 진리교회에 이것을 행하고 싶다! 이렇게 계속 저한테 교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 소망을 가져요. 이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내가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계속하시고 구체적으로 계속 또 얘기해요.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너의 복음 이거 굉장한 거다! 이 복음은 통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복음! 여러분들 이 복음이 우리 교회는 복음이 널려 있으니깐 소중히 여기지 않지만, 여러분들 평생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아마 여러분들 이 80억 중에 거의 한 70억 정도는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좀 과장을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됐고,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탁월한 복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됐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남고 끝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힘이 바로 복음이거든. 아멘이십니까? 왜 이 복음 없으면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죠. 베드로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의 빛을 밝히십시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 교회가요. 옛날에도 처음에도 우리 교회가 너무 목사가 전도한다고 이단이라 그랬어요. 목사가 전도하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제가 건대에서 처음 이렇게 개척하면서 전도를 매일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뭐 하느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목사라고 안 그랬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먼저 믿은 믿음의 형이다 이렇게 소개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나면 이제 개가 궁금해 계속하니까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단 소리 들었어요. 목사가 무슨 전도를 하나 이상하다. 그리고 왜 복음을 그렇게 그냥 믿으십니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게 뭐냐고 이 소리 들어가지고 초기예요. 우리 교회 건국대에서 이단 소리 듣고요. 그 당시 크리스천 동아리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우리 교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광진교회였는데 광진교회에서 전도하면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소문이 났는데.. 소용없어. 그래도 여러분들 다 다 믿는 사람은 바글바글해졌어. 그때도 믿을 사람은 다 믿는다고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일어나면 빛을 바라면 그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 이 여호와의 영광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영생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 이게 내 위에 임했어.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강력한 그 파워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우리들을 변화시켰는데, 사람이 변화된 것은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기적입니다. 복음 아니면 우리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 그냥 끌어안고 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어나라 그 빛을 바라라! 그 주님의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그 복음과 진리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느냐, 앞드려 있지 말고 자지 말고 일어나라! 지금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사 60:2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보라, 나도 안다. 주님이 나도 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빛이라는 거 조금도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 있다. 나도 인정한다. 상황이 안 좋다는 것 안다. 캄캄하다. 저도 생각할수록 24년 과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생각해 보면 답답하기도 해요. 한편으로 언제까지 이 재판도 늘어져가지고, 지금 내년 5월 정도나 지금 결론이 날 것 같아서 미리 매를 맞아도 빨리 한 2월 달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뭔가 주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가지고 한 5월쯤에 끝날 것 같아서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이나 아까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야, 훨씬.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어. 너에게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줬다. 넌 지금까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풍성한 거 생각 안 나냐?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가 능력 있어졌냐? 일어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복음의 그 힘찬 힘을 내가 너에게 다시 한 번 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약속을 하셨어.

사 60:3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빛으로 환하게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이 세상은 캄캄해. 진짜 여러분들 점 점 점 복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 우리가 우리 교회가 빛이 되어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보고 찾아오지. 이거를 주님께서 2024년도에 소망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쭉 나눠보겠습니다.

사 60:4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야, 눈을 들어 봐.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한번 상상해 봐라. 내가 보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나는 그게 보이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잔뜩 무리 지어서 오고 사방에서 오고 열방에서도 오고 안기어서 오고 무리로 오고 때로 몰려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는 보이는데 너는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감이 생기나요? 진짜로 여러분들 나보다 믿음이 좋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줄 몰랐어요. 이 내용들이 뒤에도 계속 나와, 61장 62장 막 나와. 왜? 이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있더라도 소망이 없어, 소망이. 소망이 없는 믿음은 진짜 허접한 건데.. 정말 여러분들은 저는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우리하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난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저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내가 저번 때도 떠난 분제가 한번 만나서 미안하다고 제가 더 잘 듣고 더 잘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미안하게 됐다 그러면서 어딜 가든지 우리가 배운 대로 어디 가든지 빛을 바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 말에는 이 뒤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이사야도 안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반복법을 계속 써요. 계속 쓰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먼 곳에서 오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원방에서 오겠고 먼 데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소망이야 여러분들 우리 남은 자들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많은 분들이 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한나가 아까 이제 간증도 했는데 지금 오스트리아나 아마 이집트나 지금 우리 헝가리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이거 그죠? 지금 전송되고 있죠?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나요? 그쪽으로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가요 우리나라 큰 교회야. 이 교회가 국내에서 자꾸 이단 시비가 있었고 국내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분들이 방향을 해외로 돌렸대요, 해외로. 그래서 해외 선교를 많이 하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이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우리 먼 곳에 먼 곳에 있는 분들 또 물론 가까이에서 있는 분들도 동서 사방에서도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기만 하면 신기하게 하네~ 왜 저 사람들 이렇게 받아들이지 왜 신기하네 왜 저 사람들은 내가 뭐 별로 애쓰지도 않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해서 왜 자꾸 빛과 진리 교회로 오지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여러분들 이 돌들로도 어마어마한 주님의 백성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주님이시여. 단지 우리가 그 빛을 바라는 발광체는 돼야 되죠. 우리가 같이 어두워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 데서도 온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사 60:5 그 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이 구절이 뭐냐 하면 넌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텐데 깜짝 놀랄 거라고 이게 5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야 신기하네 아니 내가 그냥 슬쩍 전했는데 그냥 그 쪽에서 탁 달라붙어서 그래 복음도 잘 듣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악소문이 나 있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뭐 어때 몰래 이렇게 진실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하는 거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데는 핍박을 당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느 충주의 유명한 사장님 계시는데 그분 왓 고난 한 번 안 당해본 사람하고 자기는 상종을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그 불명에 때문

에 거부하면 그분들이 복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2024년도에는 이런 일 정말 신기하게 깜짝 놀라게 이사야가 생각해도 이상하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깜짝 놀라고 너무 기쁨이 충만해진다. 우리 믿으십시오. 우리 믿으십시오! 우리 이제 발광체만 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 이거 계속 재물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여러분들 교회나 어느 단체든지 물질의 부는 여러분들 축복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느냐가 문제지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기한 건 이 뒤로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도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부자 되게 하겠다. 우리 교회를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부자 되게. 근데 우리 교회가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부자가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과감하게 여러분들 사업도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물질을 많이 벌 것으로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빈말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내년에는 엄청나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비하게 부를 많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벌을 주실 거라는 소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6-7절에 부를 주는 과정이 나타나 있어요.

사60:6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와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 계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웃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복잡한데 주제는 뭐냐 아주 그냥 부자들이 많이 온다. 또 여러분들 여기 대상들 아주 그 당시 사업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스바나 이런 쪽은 아주 무역을 잘해서 굉장히 부유한 쪽이고 여러분들 느바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느바웃도 우리 페니키아 제국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역사 책에 나온 페니키아 공화국..

이렇게 여러분들 부유한 자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우리가 겨우 자기 처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릴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행동하시면 내년에 엄청난 부가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사 60:8 저 구름 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구름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비둘기가 여러분들 반드시 날아갔다 해도 자기 집으로 오는 회귀성이 있죠.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간 분들도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다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 60:9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복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영향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물질적

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부유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온다, 멀리서도 온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면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외국인 수련회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 열심히.. 가난한 자들, 돈 있는 분들은 자비로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우리 외국인 선교를 수련회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우리 선교부에서는 선교 위원회에서는 한번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세요. 10절,

사 60:10 내가 노하여 너를 졌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붙잡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여러분들 이제 주님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저도 우리 교회가 잘났다고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부분이 있죠. 사실 우리가 더 섬세하게 사역을 했어야 되고 사람들을 훈련이라는 그런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는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 전사들, 우리 멘토들이 보통 썩니까? 그러니까 이제 훈련한다는 측면으로 여러분들 어떤 때 막말도 하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저를 반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멘토가 옛날에 저에게 막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 멘토가 그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저는 사랑으로 받아들였고 어떤 분은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여서 나간 분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다 더 사랑으로 돕지 못한 것 보다 더 민감하게 돕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주님이 노여워할 만하시겠구나. 우리가 여러분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었구나.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자발적인 순종은 좋은 거죠. 너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었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지금 우리가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재정에 관해서 어느 교회보다 떳떳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들은 그걸 더 서류화를 잘해놓고 더 투명하게 이렇게 우리 교인 모두에게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는 제자 삼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물질적인 돈에 관계된 것은 서로 믿고 서로 그냥 인정하고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세대는 그게 안 통한다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앞으로 우리 재정은 더 투명하게 할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걸 전혀 흠과 티가 없도록 우리가 할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흠과 티가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쳐나가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판해선 안 됩니다. 왜 물론 비판은 해야 되죠, 하긴 해야 되는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이제 고치자 우리 이제 이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자발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하자.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결심을 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분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진노 이런 것들을, 이제 4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난을 많이 당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때쯤 이 고난을 이 진노를 돌이키시는 그 약속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쯤 니네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혁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 우리 교회는 다시는 역지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역지로 하는 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장로님부터 멘토들부터 위원회부터 누가 보더라도 투명한 재정 집행과 여러분들 그 증거 이런 것들을 잘 남겨두셔서 다시는 어떤 곳으로부터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 이사야의 비전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과 더불어서 새롭게 유입되는 먼 곳이든지 가까운 곳인지 여기 이방인으로 계속 나오지만 여러분들 새로운 새 피가 계속 수혈된다는 소망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가신 분들은 각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축복해 주고 그들 만나면 여러분들 같이 교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그분들을 뭐라고 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했던 분들이고 우리 형제자매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서로 안 맞아서 싸웠더라도 나중에 다시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나간 사람들에게 대해서 뒤에서 영똥한 얘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대신 여러분들 우리 남은 자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들고 나가면 여러분들 새로운 피들이 많이 유입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온다 멀리서 온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서 우리 보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우리가 흠어져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흠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면 되고. 우리 남은 자들도 또 남은 대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이런 모습들을 이번 연도에 보이게 하신다고 저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 60:11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이라

이방 나라 계속 나와요. 그냥 역지로라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왕들이라는 말은 상당히 권세가 있는 분들도 많이 올 거다. 겁 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권세가 있는 분들 법조인이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든지 사업하는 사람이든지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여러분들 두려워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하세요.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대신 일어나야 돼. 우리 조금이라도 비춰야 되죠.

여러분들 아까 그 성문은 우리 교회가 옛날에 어땀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불야성을 이뤘죠. 우리 교회가 다시 그거보다 더 큰 더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그런 불야성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글바글해질 거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사 60:12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거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하여간 뭐 우리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엄청난 복을 누리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은 멸망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슬픈 이야기지만 이런 일들도 있다 뭐든지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 60:13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지금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사야는 그 성전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파괴됐잖아. 그 성전이 새롭게 지어진단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에 성전을 새로 짓거나 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 거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요모조모 잘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언해놓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 60:14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와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진짜 우리 교회 지금 괴롭히는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다 와서 죄송하다고 할 것 같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 앞에 완전하지 못해서 늘 죄송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진실로 와서 죄송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꺼이 화합을 해야죠. 그런 비전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 60:15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 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 시대에 인권이 강조되면서 이 훈련이라는 것이 버림을 받고 미움도 받고 천대도 받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게 되면 그 교회 진짜 우리 교회 칭찬하는 분들 꽤 있어요. 우리 교회 진실을 아는 분들은 그 교회는 진짜 청년들도 많고 여전히 훈련 뻑세게 한다더라 이런 칭찬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 동기를 가운데는 대부분 저를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이 거짓 언론만 보고 가짜 뉴스만 보고 우리 교회를 일방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미움을 당하지 않는, 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 60:16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못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와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것도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다. 새로운 새 피가 많이 충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 60:17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여러분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모임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놋보다 더 귀한 게 금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철보다 더 귀한 게 은이고.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교회의 약점들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견고하게 변한다 이런 소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주석까지 다 살펴본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성령께서 그렇게 이걸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화평, 공의 이런 것들이 아주 뚜렷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억지로가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믿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 교회는 누구도 불공평을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 누구도 무시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께서 이끌겠다. 우리 발광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누구도 여러분들 낮게 보지 말고 다 존중해주고, 누가 오든지 환영해 주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또 그 사람 스펙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 중심에 복음이 있느냐 빛이 있느냐 이걸로 평가해서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고 영원한 동역자로 세상을 거시게 해야 되죠.

사 60:18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24년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견고케 하시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주 견고한 교회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 60:19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께서 네 영광이 되리니

여러분, 여기 해 달 빛 이것은 전부 다 세상적인 풍성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해를 신봉했죠. 해가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은 굉장히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의 상징은 세상적인 풍요의 상징인데 여호와가 대신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풍요로움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이 되어주시겠다. 이제 세상에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행복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 60:20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래서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 60:21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왜? 주님이 직접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힘없고 내가 만 들었고 내가 지금 이 교회를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 빛과 진리 교회를 정말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사야가 잘 안 믿어, 또 그랬더니 22절!

사 60:22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암송구절, 우리 교회 개척 때 있죠 우리 교회 7명 모였을 때 처음 개척을 했는데 그때 이 약속을 주장했어. 우리 교회 천 명 될 거다. 근데 이 한 세대가 거의 흘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 원 제너레이션이라는 말 자체는 30년 터울로 문화가 바뀝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하는 과정이나 제 제자 훈련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약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30년에서 이 문화가 그 문화가 30년마다 거의 바뀌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옛날에는 여러분들 진짜 치열하게 훈련하는 거 어떻게 교회에서 훈련하더라도 괜찮고 또 책망해도 괜찮고 막말을 해도 감사하게 받던 우리

시대에는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날 젊은이들은 존중받고 싶어 하고 아주 지혜롭게 되야만이 이 사람들이 도전받아서 내가 훈련해야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관심한 척하면서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요즘 세대는 너무 이렇게 들이대도 도망가니까 아주 지혜롭게 주님이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모든 지혜로 돕는 새로운 교회 질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약 30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 새로운 어떤 문화 새로운 교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교회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면 됩니다. 빛을 바라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맡은 바를 열심히 하면 이 교회가 전체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문제만 제기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문제만 던지면 그거는 빛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줘. 너 그래 너 작어 너 작어 작다는 말은 그래 부족한 거 많지 또 죄의 유혹에도 약하지 믿음도 별로지 뭐 이렇게 사랑도 별로고 모든 게 다 부족하지. 하지만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를 거야. 너 우리 교회 작고 부족한 거 알아. 근데 내가 하겠어! 이 작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해주겠어, 작은 자가 천 명이 천을 이루게 해주겠어.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 또 작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강하게 해줄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저는 이 22절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믿으시죠? 우리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1시까지 마쳐야 되는데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캐치 브레이즈로 아주 잘 이 이사야 60장을 녹아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발광체? 그래도 좀 이게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 ㅎ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우리 다음 주까지 홈페이지에 좀 이렇게 올려서 좋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서로 해서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발표하는 걸로 어떨습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또 가서 잠 잘 때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 요 60장을 잘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아주 그리고 센스도 있고 이렇게 의미도 짝 다가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 24년도에 비전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뭘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는 발광체 역할을,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저를 통해서 이 교회가 견고케 되고 부흥하고 자기 자신도 부흥하고..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도를 하시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오늘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제가 이제 안수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제가 요즘 일주일 내내 특세하고 막 이랬더니 지금 약간 좀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주님 좀 봐주세요~ 제가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안 되신데 너 내 종이니까 네가 축복하나? 내가 하지! 그냥 너는 그냥 발광체인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의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그 능

력이 많으신 분이 믿음이 없으면은 거기서 표적을 못 보이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들. 자기가 우리 MJ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이런 확고한 믿음 있는 분들만 안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없는 분 그냥 한번 해봐 이런 분들도 받으시긴 하겠지만, 그런 명확한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깥에서 춥고 하니까 저번 때처럼 요 강대상 이쪽으로 쪽~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안수를 1초 정도밖에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소망과 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이렇게 쪽 지나가셔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서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내용들을 우리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먼저 급하신 분들은 좀 양보를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거 하는 데 한 30~40분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안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빛과 진리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이 부족한 것 천지인 이 종을 통해서 개척을 하게 하셨고,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주님의 그 안타까움과 주님의 그 진노 속에 4년을 보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부요케 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복받고 부응하고 또 성령 충만해야 만이 발광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려고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놀라운 표적과 능력과 그 기사가 우죽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